

# 연봉 97%는 계약 끝난 후 지급 ... 오타니의 '기상천외' 계약



▲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오타니 쇼헤이를 합성한 모습. 사진=디 애슬레틱 SNS

다저스 구단이 12일 오타니와 북미 스포츠 사상 최고액인 '10년 7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계약의 세부 조건이 공개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오타니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연봉을 200만 달러씩만 받는다. 이는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 490만 달러의 절반 이하고, 올해 김하성의 연봉 700만 달러의 1/3도 안 되는 금액이다.

전체 액수의 97%인 나머지 6억 8천만 달러는 계약이 끝난 뒤인 2034년부터 49살이 되는 2043년까지 10년 동안 6천8백만 달러씩 나눠 받는다. 사실상 은퇴 뒤에 연봉 대부분을 받는 것이다. 천문학적 계약금의 97%를 지불 유예는 역대급 계약금만큼 프로스포츠 역사상 전례가 없다.

이런 희한한 계약은 오타니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선수들에게도 투자해 강한 전력을 유지해달라는 이유 때문이다. 다저스에는 오타니 외에도 베츠, 프리먼 등 고액 연봉자가 많다. 다저스는 3명에게만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매년 써야하기 때문에 다른 로스터를 꾸릴 여유가 없다.

팀 선수 임금 총액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내는 제도인 이른바 '사치세' 적용을 위해 선수 임금을 계산할 때는, 실제 연봉이 아니라 빅리그 노사협약에 따라 연금리

4.43%를 적용해 미래 연봉의 가치를 낮춰 현재 가치로 조정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연봉 대부분을 11년 뒤부터 수령할 오타니 계약의 현재 가치는 10년간 7억 달러가 아니라 4억 6천만 달러로 확 낮아진다. 즉 다저스 구단은 사치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른 선수에게 투자할 여유를 얻을 수 있다.

이미 광고 출연 등 연봉 외 수입으로 천문학적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2018년 미국 진출 이후 포스트시즌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오타니로서는, 더 많은 돈보다 승리가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오타니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절세의 방편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타니가 은퇴 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최고 세율인 캘리포니아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오타니는 연봉소득세 3,300억원은 내더라도 주 세금 1,240억원은 면제받을 수 있다.

오타니는 "다저스에서 월드시리즈에 진출하고 싶다"는 입단 소감을 밝혔다.

# 고진영, 유일무이한 '58개월 연속' 세계랭킹 톱10

세계랭킹 1위 선수가 역대 최다인 5명이 나올 정도로 요동친 2023년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 12일 현재 한 번도 10위 밖으로 밀리지 않은 선수는 2명뿐이다. 세계랭킹 6위를 기록한 고진영과 5위를 유지한 넬리 코다(미국)다. 두 선수 모두 올해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으나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고 현재 순위까지 밀려 있다.

1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데뷔 해는 코다가 고진영보다 1년 빠르다. 고진영이 2018년 루키 해를 보냈고 코다는 2017년 데뷔 해를 치렀다. 하지만 톱10에 먼저 오른 것도 고진영이고, 먼저 세계랭킹 1위에 오른 것도 고진영이다.

먼저 코다는 2019년 2월 중순 ISPS 한다 호주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세계랭킹 9위에 오른 게 첫 세계랭킹 '톱10' 기록이다. 하지만 그해 4월 10위 밖으로 밀렸다가 6월 다시 톱10에 진입했다. 이후 코다는

현재까지 4년 6개월 가까이 톱10을 유지하고 있다. 곧 54개월이 된다.

고진영이 처음으로 세계 톱10에 진입한 것은 2018년 10월 말이다. 그도 2019년 2월 세계랭킹 11위로 잠시 내려왔다. 하지만 정확히 1주일 뒤인 2월 말 세계 톱10에 재진입했고 지금까지 10위 밖으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있다. 무려 4년 10개월, 개월 수로는 58개월 가까이 된다.

2019년 4월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 후 처음 세계랭킹 1위에 등극한 고진영이 5위 밖으로 밀린 건 최근 일이다. 2019년 4월 이후 1위 아니면



▲ 고진영. 사진=AP/연합뉴스

2위로 계속 톱10 행진을 이어가던 고진영은 지난해 하반기 10위 밖으로 밀릴 위기가 있었다. 컷오프와 기권의 연속으로 지난해 세계랭킹 4위까지 떨어졌고 올해 초에는 5위로 한 계단 더 내려갔다. 하지만 5월 코그니트트 파운더스 컵에서 시즌 2승을 거두며 세계랭킹 1위로 복귀하는 반전 드라마를 썼다.

고진영의 세계랭킹 6위는 4년 반 전 1위 등극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하지만 골프 팬들은 2024년 다시 더 단단해진 고진영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의 세계랭킹 톱10 행진도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http://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